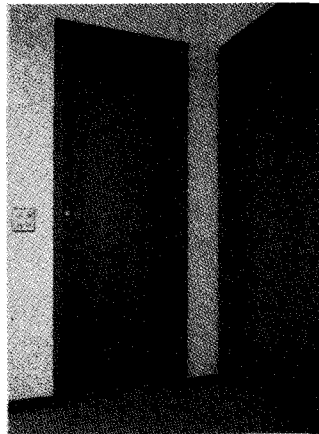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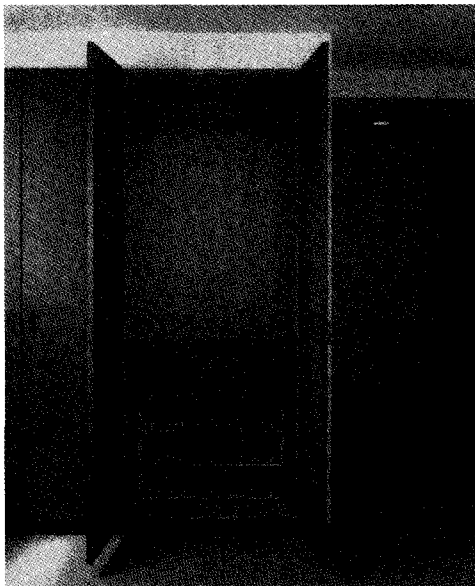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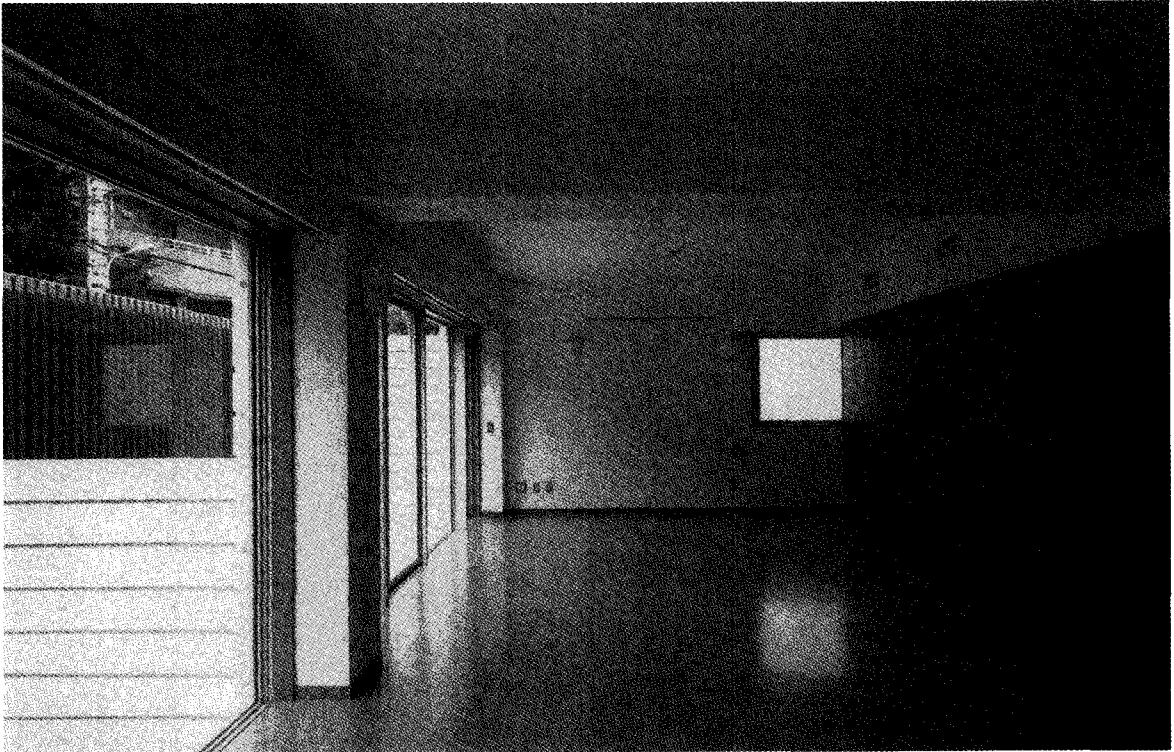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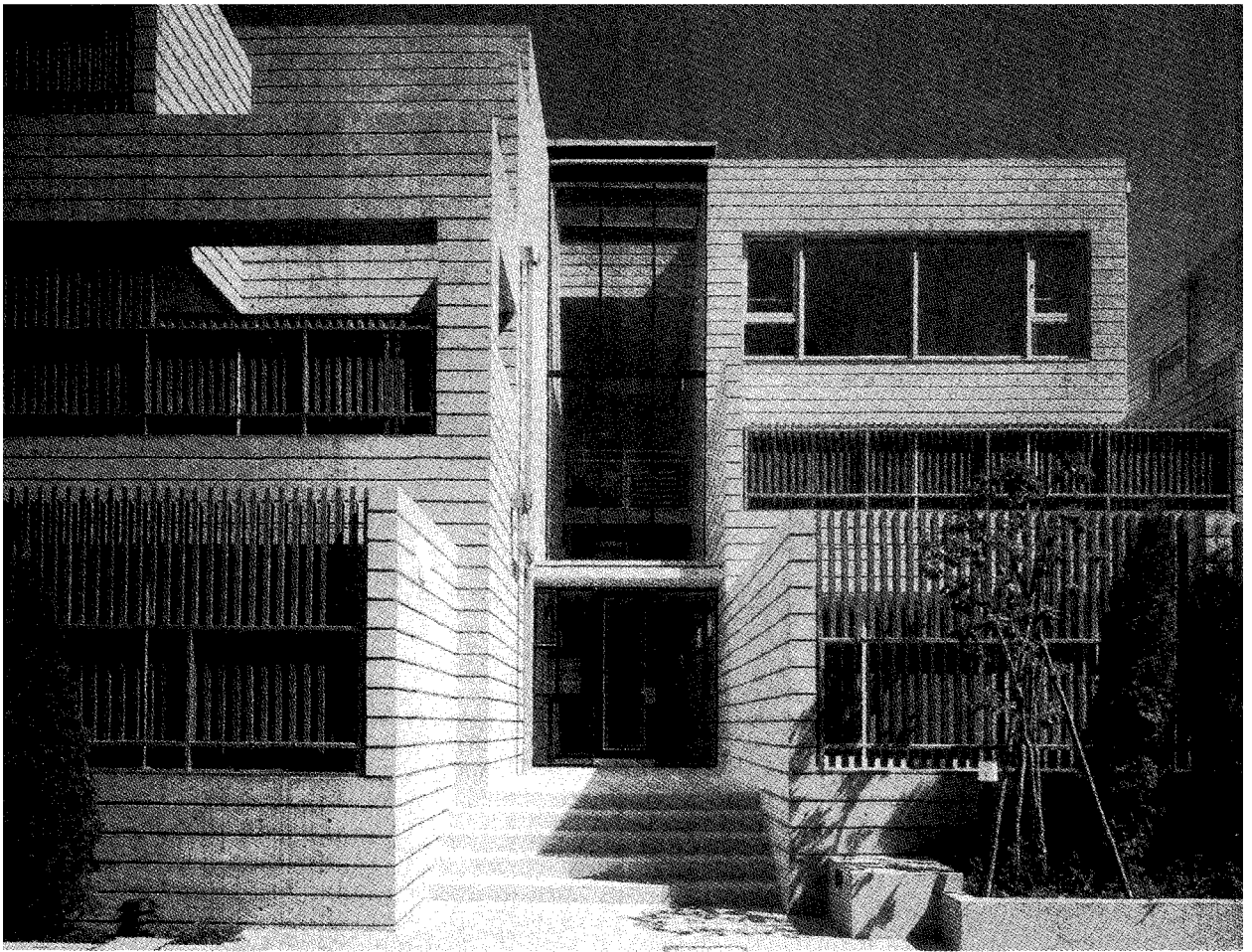


목재 건자재로 차별화를 노리는 고급임대주택



외국인은 인테리어를 장식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가구를 들여 놓아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심플한 사양으로 했다. 창호와 불박이 벽장, 걸레받이, 재목을 통일하고 있으나 건재 메이커의 양산품을 사용해도 이 정도로 갖추기는 의외로 어렵다고 한다.

불박이 장농의 안쪽은 일본 장농에 자주 사용되는 오동나무로 되어 있다. 기계로 칠과 연마를 하였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조각가구에서는 볼 수 없는 광택이 난다. 나무 무늬가 고운 빛나무재를 양판의 마감재로 사용하여 틀이나 울거미에 깊은 조각을 하였다. 재목을 연결하지 않은 것이 고급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로터재라고 하는 폭이 넓은 재료를 사용하였다.



1개층에 2세대 단위로 동을 분할하였다. 1, 2층은 메소네트(maisonette), 3, 4층은 플랫폼(flat)이다. 1동 마다 5~6세대가 입주한다. 정원이 없는 대신 발코니의 안 길이를 3m 정도로 하여 목재 루버를 높이 올렸다. 실내쪽의 걸치레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루버를 고정하는 철물을 외측으로 가져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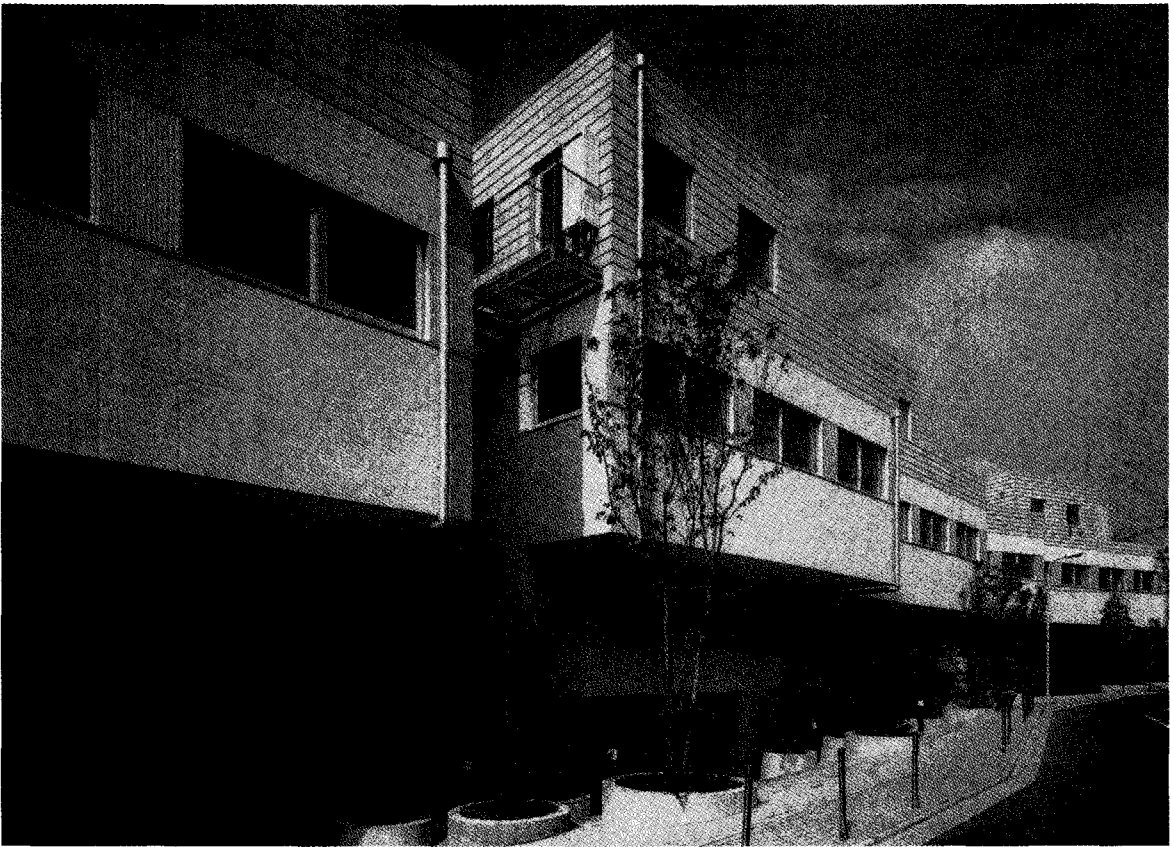
동경의 한 공동주택 ‘체리시 가든’은 내장에 목재 건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붙박이 가구의 화장재는 벚나무로 하고 의장 장농의 내장은 오동나무로 하고 있다. 창호와 걸레받이, 커튼 박스까지 붙박이 가구로 재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통일감이 있다.

목재 건자재에 구애된 것은 월 임대료가 100만엔을 넘는 외국인들을 위한 고급 임대주택이기 때문이다. 설계자인 高橋眞씨는 “이 정도의 고액임대료에 대한 만족감을 여하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소모품인 클로스와 바닥재가 아닌 개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만져서 질감을 확인할 수 있는 목재 건자재에 주목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목재 건자재라고 하면 건자재 메이커의 양산품을 사용하거나 한 품목씩 조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여기서는 그 어느 쪽도 아닌 방법을 택하고 있다.

高橋眞씨가 알고 지내는 일반 가구 메이커인 土井木工(広島府中市)이 부재를 양산하여 조각가구(造作家具)의 숙련공이 그것을 현장에 설치한 것이다. 설치공사는 400개 이상이었지만 불과 1개월 만에 완료하였다. 비용은 건축공사비의 6%에 해당하는 9,300만엔으로 끝내고 있다. 설치 작업을 청부한 創美의 朝倉幸子 상무는 “1개월은 공기가 단축되었다. 조각 공사는 건축공사비의 13% 정도가 보통이기 때문에 6%는 파격적이다.”라고 말한다.

건물은 한 개층에 2세대 단위로 3동을 분할한 것이 포인트이다. 1세대의 바닥면적이 넓기 때문에 분할하지 않으면 충분한 가구 면적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완전히 분할하면 일조규제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하를 연속시켜 일단지인정(一團地認定)(建基法 86조)을 취득함으로써 규제를 면하였다.



서쪽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절벽과 같이 높은 주택이 솟아 있다. 거리에 미치는 압박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세트백시켰다. 보도와 부지를 같은 면에 두어 걷기 쉽게 하고 있다. 차도를 걷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자동차가 오면 보도로 대피할 수 있도록 보도를 낮추고 가드레일을 없앴다.

뉴비지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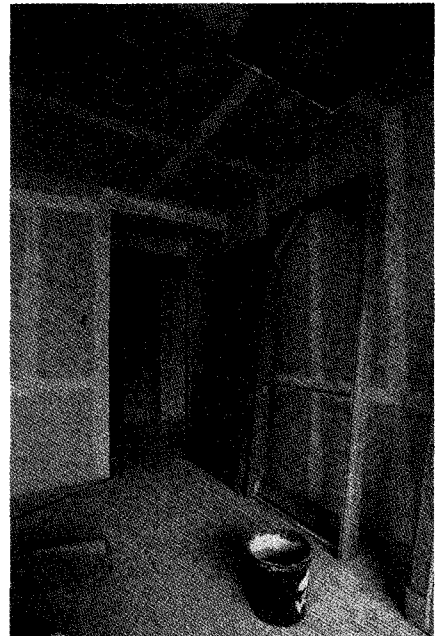
세계자가 조작용구의 새 회사를 설립

高橋眞씨와 朝倉幸子씨 그리고 土井啓嗣씨(土井木工 社長)는 체리시 가든에서의 시도를 보급시키기 위하여 1월에 새로운 회사 '뽀'를 설립하였다. 붙박이 가구, 창호, 걸레받이, 커튼 박스 등에 관한 디자인 상담에서부터 도면작성, 공장 발주, 제작, 시공까지 청부한다.

조작용구 숙련공과 가구메이커 쌍방의 장점을 도입하면서 각기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획기적인 계획인 것이다.

가령 조작용구의 장점인 디자인의 자유도를 발휘할 수 있는 한편 조작용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생산 등에서의 높은 품질이 확보된다. "일반 가구용으로 수년동안 건조시킨 재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틀어짐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土井씨는 말한다. 붙박이 작업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조작용구 숙련공이 담당한다. 현장의 노하우가 없는 가구 메이커와 고령화와 일감의 감소로 고민하는 조작용구 숙련공의 쌍방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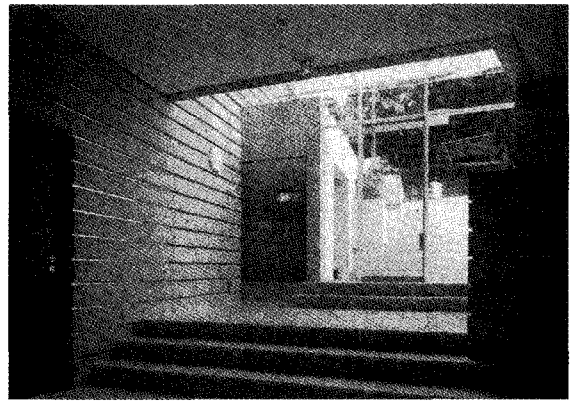
비용은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디자인에서 선택한 경우 집성재(集成材)로 벗어나 후판을 쓴 문얼굴에 태피스트리(tapestry) 글라스를 끼운 창호가 약 20만엔으로 "조작용구의 약 반액 이하"라고 高橋씨는 주장한다.



칠을 마친 상태로 공장에서 도착한다. 다음은 설치하는 것 뿐인데 설치에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공용계단과 엘리베이터 홀. 스테인리스 골합석판을 벽에 붙였다. 비쳐진 상을 모호하게 하고 좁은 것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천정과 엘리베이터 맞은 편에는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다.



관리인실과 공용체육관에 면하는 지하 1층 홀. 체육관의 넓이는 60㎡ 정도. 트레이닝 머신 몇 종류를 두고 있다.

관계자의 소리 **이그젝티브에게는 너무 모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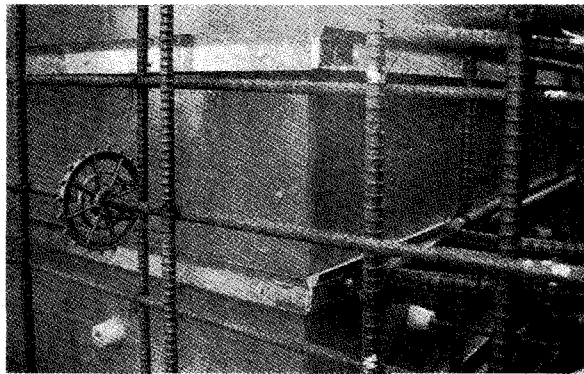
입주자는 모두 외국인으로 전부 법인계약이다. 예약종인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입주하고 있다. 지난 겨울부터 외국인의 유입이 줄었으나 건투하고 있다. 타운하우스같이 만든 것이 차별화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내장이나 불박이 가구도 대단히 호평이다. 너무 모던이라는 의견은 몇 번 듣고 있다. 젊은 부부에게는 반응이 좋았으나 그 위의 이그젝티브를 겨냥하기에는 좀 더 외관에 무게가 있는 것이 좋을런지 모르겠다.

입주자 모집 담당의 村田成希씨

디테일

스테인리스로 줄눈 열화 방지

체리시 가든에서는 콘크리트 페어페이스드 줄눈에 스테인리스를 타설하는 공법이 채택되었다. 콘크리트 페어 페이스드의 새로운 표현 수단을 추구함과 동시에 외국인에게 여하이 어떨하는 가를 의식하고 있다. "스트라이프 모양으로 한 것은 외국인이 좋아하는 컨트리조(調)를 연출하기 위해서다."라고 高橋真씨는 말한다. 기능적인 역할도 있다. 콘크리트 덮개 두께가 줄어드는 줄눈 부분은 손상되기 쉬운 위치지만 실링하는 것이 보통이나 스테인리스 줄눈을 넣었기 때문에 실링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결점은 비용이 비싸지는 것이다. 시공에 힘이 들 뿐 아니라 스테인리스를 매설하기 위하여 외측에 콘크리트를 더 치게 된다. 거꾸집에 요철이 되기 때문에 곰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시공에 주의가 필요하다.

